

자료명	대한상의 에너지절약 운동 동참
엠바고	<b>배포즉시</b>
문의처	기획팀 박찬욱 팀장(02-6050-3102, 010-3088-4953), 최승혁 대리(02-6050-3106, 010-5054-3155)

## 대한상의 및 74개 전국상의, ‘에너지절약 운동’ 동참

- 중동발 에너지 위기 극복 위해 대한상의 및 전국 74개 지역상의, 에너지절약 캠페인 전개
- 차량 5부제 시행, 대한상의 및 지역상의 임직원 업무용·출퇴근 차량 대상
- 적정온도·소등·대기전력 차단 등 절약 캠페인 병행... 20만 회원기업에도 자율 동참 독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기조에 발맞춰 대한상의는 물론 전국 74개 지역상공회의소가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24일 정부가 “공공기관은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하고, 국민들께서도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 쓰기 운동에 동참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고 당부한 데 대해, 대한상의도 적극 호응에 나선 것이다.

대한상의는 전국 74개 지역상의에 에너지절약 동참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지역상의가 소속 회원기업들에게도 에너지절약 캠페인 동참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국 20만 회원기업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이 확산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차량 5부제 적용 대상은 대한상의 및 전국상의 임직원의 업무용 차량과 출퇴근 차량이다. 차량 번호 끝자리별 지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주 1회 제한하는 방식으로,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순으로 적용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다만, 정부 발표에서와 같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불가피한 업무용 차량 등은 적용에서 제외하여 운영한다.

대한상의는 차량 5부제와 함께 에너지절약 캠페인도 병행한다. 주요 실천 과제로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지침에 따른 ▲실내 적정온도 유지(난방 20℃, 냉방 26℃) ▲엘리베이터 효율 운행 및 냉난방 순차운휴 ▲대기전력 차단 및 에너지절약마크

제품 우선 사용 ▲비대면 화상회의 전환·점심시간 소등·퇴근 시 전원 차단 등이 있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절약 조치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IEA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경고할 만큼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며, “전국 20만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에너지절약에 앞장서고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에너지절약에 동참한다면, 이 위기를 반드시 이겨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